## 창간 70주년 社說

# 호남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소임 다할 터

광주일보가 오늘로 창간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호남 언론의 선구자인 광주일보는 현대사의 산증인이자 지역 사회의 파수꾼으로서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해 왔습니다.

광주일보는 지난 1952년 4월 20일 6·25전쟁의 황량한 폐허 위에 타블로이드판 두 개면으로 고고성(呱呱聲)을 울렸습니다. 지난 2015년 5월에는 호남 언론 최초로 지령 2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불편부당의 정론을 편다. 문화창달의 선봉에 선다. 지역개발의 기수가 된다'는 3대 사시(社是)가 우리를 이끄는 등불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일흔 성상(星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호남이 넘어야 했던 역사의 파고가 그만큼 험난했기 때문입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IMF 외환위기, 촛불 혁명 등 격동의 물결 속에서도 오로지 독자만을 위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텨 왔습니다. 숱한 역경에도 호남 대표 언론으로서 위상을 올곧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지역민과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뜻깊은 오늘, 독자와 함께했던 영광의 흔적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광주일보는 독재 정권 시절부터 민주화운동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갖은 핍박에도 정론직필의 기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창간호부터 이승만 독재를 통렬히 비판하고 3·15 부정선거 규탄과 4·19 혁명 상황을 상세히 전했으며, 언론의 암흑기로 불리는 70년대 유신 시대에 언론 자유 실천을 결의하는 등 시대정신과 늘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기자들은 독재 정권의 검열에 저항해 공동 사표를 2만 장의 호외로 뿌렸습니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열흘간 신문 발행이 중단돼 언론 기능이 마비됐지만 6월 2일 '무등산은 알고 있다' '광주는 영원하다'는 제하의 기사로 피맺힌 절규를 대변했습니다. 1989년 1월부터 47회에 걸쳐 연재한 '5·18…그 후 9년'은 처음으로 5·18의 진상을 심도 있게 규명함으로써 한국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일보는 또 철저한 기자 정신으로 '무등산 타잔' 박흥숙 사건, 사립중고교 교사 채용 비리, 전남도청 전자입찰 비리, 전남도지사 자녀 공무원 특채 및 관용여권 불법 사용, 한빛원전 방사능 유출 은폐 시도 등 숱한 특종 보도를 통해 워치독(watchdog)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호남 의병의 혼을 재조명한 '의병열전'과 '백제의 숨결을 찾아서' '천년가람' '신 호남가' '현대사 현장' 등 역사·문화 기획, 우리 산줄기를 전통 인문지리 관점에서 풀어 낸 '백두대간을 찾아서', 다문화사회를 집중 해부한 '온누리안리포트' 등 이주여성·외국인 노동자 연작 시리즈, 아시아 각국의 문화 원형을 탐사하는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 등 대형 특집 연재물로 다수의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낙후와 소외의 대명사였던 호남 발전 방안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호남선 복선화·호남고속도로·여수석유화학기지·대불국가산단 착공을 이끌어 냈고, 첨단산단·기아차·광주글로벌모터스 등을 기반으로 광주의 생산도시화를 유도했습니다. 아울러 빛가람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광주일보는 다양한 사업과 캠페인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4·19 희생자 유가족 돕기 운동과 광주학생회관 건립 캠페인, 북녘 동포에 경운기 보내기, 상무대 반환, 타슈켄트 광주한글학교 설립, 영산강 살리기, 무등산 사랑 운동, 5·18묘지 민주나무 헌수, 남도학숙 건립 캠페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올해로 67회째를 맞은 호남예술제는 수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하며 지역 문화의 산실 역할을 했습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월간지인 '예향'은 남도의 문화와 숨결이 깃든 특화 기사를 발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1965년 시작된 3·1절 전국마라톤대회는 호남 육상의 요람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해 지방 신문 최초의 조석간 발행과 납 활자 및 펜 대신 전산으로 신문을 만드는 컴퓨터조판시스템(CTS) 도입, 인터넷 광주일보 서비스 등 신문 제작 환경 변화를 선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광주일보는 호남 최대 발행 부수를 유지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 신문잡지 이용 조사'에서 국내 종이신문 가운데 열독률이 가장 높은 1구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많기도 하지만 지금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절실한 과제는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입니다. 다행히 대유행의 정점을 벗어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모두 해제되고 일상 회복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와 지자체는 민생 경제의 회복,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고 집값 안정과 연금 개혁, 남북 관계 재정비 등 버거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경제가 인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는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할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호남 발전이 곧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역설해 온 만큼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는 탕평 인사와 국가 균형 발전으로 당면한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창간 70돌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광주일보는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는 사실 보도와 품격 높은 논평으로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발 끈을 바짝 조여 멜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중심' 기사로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호남과 지역민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을 것입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선봉에서 이끌어 온 광주와 호남이 실용의 지혜를 발휘하여 경제·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공공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불안전·불균형을 혁파하고 공존과 균형을 회복하는 데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쇄신과 차별화를 통해 호남 대표 언론으로서 명예를 지킬 것입니다.

광주일보는 호남인의 진정한 대변자이자 공기(公器)가 되겠다는 70년 전의 초심(初心)을 되새기고, 오늘의 시대정신을 직시하며, 100년 역사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배전의 충고와 편달을 바랍니다.

## 은펜칼럼

# 디지털 시대와 문해력에 대하여

김창균
빛고을고등학교장

작년 대입 수능 국어 영역에 대한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는 '불수능'을 넘어 '용암수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그런데 시험 직후 출제 위원이나 현장 선생님들은 수준이 평이하여 등급 컷도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한다. 이러한 간극의 원인으로는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상황을 드는 게 일반적이었다. 대면 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온라인 수업이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언택트(비대면) 교육 환경은 사전 제작된 동영상을 기초로 하여 힘들게 출발하였다. 하지만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학습 태도를 지도해 줄 보호자의 유무와 가정의 하드웨어 여건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졌고, 비대면의 특성상 주의가 분산되는 탓에 학습 결손을 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화상회의 솔루션이 등장했지만 이른바 '줌 피로'(Zoom Fatigue) 문제가 대두하였다. 여러 사람과의 동시다발적 눈 마주침, 대상과의 물리적 공간 협소로 인해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고, 제한된 상황에서 상대의 비언어적 정보를 찾고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이다.

이에 게더 타운(Gather Town,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오피스 겸 화상회의 웹 플랫폼)과 같은 초기 메타버스 교육이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학습자 스스로가 만든 자신의 아바타를 매개로 가상공간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으로 보인다.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다양한 상호 작용이 온라인상에서 어렵다는 점, 학생들의 학습 상태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과 실시간 피드백의 필요성 등의 미비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메타버스에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칫하면 매체 고유의 가치와 비교 우위에 대한 이해 없이 새로운 기술적 이슈만을 천착하는 오류를 반복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학생들에게 온라인 동영상을 통한 학습이 결코 낯선 경험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오프라인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유튜브(YouTube)에서 익히고 있다. 학습 동기와 의지가 뚜렷한 학습자에게 온라인 교실도 효과적이라는 점은 마스터클래스(MasterClass, 전문가가 사전 녹음한 튜토리얼 및 강의에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는 미국 온라인 교육 구독 플랫폼)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이다.

작년 수능 국어로 돌아가 보자. 시험이 끝난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난이도를 평이하다고 예측한 근거의 하나는 예년에 비해 지문의 길이가 눈에 띄게 짧아졌다는 점이었다. 정보량이 많지 않은 지문이라 안정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현실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국어 영역 지문은 글을 읽고 이해하며 제시문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아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 즉 문해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학생들이 영상과 자막으로 주어지는 짧은 텍스트에 길들게 되면서 어휘력이 떨어지고 긴 글 읽는 것을 힘들어 한다는 점을 교육 현장에서는 염려하고 있었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도 읽기 능력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다수의 자료를 읽고 평가해 자신의 의견을 적는 문항과 여러 자료를 검토해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 그러고 보면 코로나 이전부터 나타난 문해력 저하 문제가 비대면 상황과 맞물리며 수능을 통해 수면 위로 부상한 셈이다.

사실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의 읽기는 책을 통하기보다 어렵다. 문자 기호에 시각, 청각 등 복합 감각을 아울러서 표현하기 때문이다. 제작자가 의도한 영상의 흐름과 속도를 따라갈 우려도 크다. 그러므로 대충 읽고 쉽게 '복사하기'(Ctrl+C)와 '붙여넣기'(Ctrl+V)하는 한 문해력 향상은 요원하다.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피싱 메일 식별 역량' 평가 결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PISA 보고서에 유념할 일이다.

## 無等鼓

# 그림 속 숫자

그림 속에 숫자의 비밀이 숨어 있는 명작들이 더러 있다. 풍속화의 대가 김홍도의 '씨름'에는 '마방진'(魔方陣·magic square)의 원리가 숨어 있다. 마방진은 가로, 세로, 대각선 어디든 합쳐도 숫자가 같은 매직 넘버다.

그림에는 씨름을 하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사방에 사람이 배치돼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 대각선의 합이 8+2+2로 12이고,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방향(↙) 대각선의 합 역시 5+2+5로 12가 된다.

1년이 12개월, 하루가 밤과 낮 12시로 나뉘듯 당시 12라는 숫자는 완전체로 인식돼 있어 김홍도는 마방진 기법으로 이런 의미를 표현했다.

현대 화단의 가장 개성적인 화가인 천경자의 작품에도 숫자가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 우선 그녀의 자서전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부터 숫자가 등장한다. 작품 제목 속 숫자는 그녀의 나이를 나타내는데 자서전 제목과 같은 작품에서 따왔다.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는 1974년 홍대 교수직을 던지고 탄자니아 킬리만자로를 방문해 그린 것으로 코끼리, 기린, 사자, 얼룩말이 평화롭게 초원에 모여 있는 작품이다.

고단했던 젊은 시절을 끝내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작품 활동을 막 시작하던 때로 새로운 행복을 찾아 변화를 시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는 54세 천경자가 22세 때를 떠올리며 그린 자화상이다. 꽃을 든 여인이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 위엔 뱀 네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뱀은 그녀가 낳은 2남 2녀를 상징한다.

천경자가 일본 유학을 마치고 광주에 와서 전남여고 교사 겸 조선대 강사로 활동하던 시점이 광주일보 창간 무렵이었다. 그녀는 전일미술관에서 수차례 전시회를 열고 호남예술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광주일보가 키운 이 나라 최고의 여류 화백이었다.

'호남 문화예술의 산실' 광주일보 창간 70주년을 맞아 새삼 그녀가 떠오른 이유다. /장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bungy@

## 기 고

# 윤석열 정부의 도래와 5·18의 과제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에 앞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지역민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차기 정부가 5·18과 불화하기보다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민들의 낮은 기대와 우려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5·18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본보기로 삼았으면 한다. 정치적 지향이 다른, 그것도 직전의 대통령을 본보기 삼자는 제안은 정치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주장처럼 들리겠지만 만약 윤석열 당선인이 이러한 태도를 수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5·18 과제는 단순 명쾌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호남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치인 문재인이 처음부터 지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와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다자 구도로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광주 61.1%, 전남 59.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득표율 41.1%에 비하면 높은 득표율이지만 압도적 지지라고 할 수 없는 결과였다. 오히려 대통령 선거 이후 지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꾸준한 지지를 보냈다. 호남 지역의 지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심 어린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호남 지역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5·18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견은 존재한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보여준 5·18에 관한 진심 어린 태도와 자세는 누구나 수긍하고 인정할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진심을 담아 상처받은 시민들을 위로했고, 그 위로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 어린 태도는 나비효과처럼 미완의 과제였던 진상 규명에서도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2017년 8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된 광주 폭격 계획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의 원동력이 되었다. 현재 활동 중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의 동인은 광주 폭격 계획에 관한 공군 조종사의 언론 제보였다고 볼 수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전환점을 마련한 공군 조종사의 양심 고백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 공군 조종사가 37년 만에 양심 고백을 결심한 계기는 다름 아닌 5·18 기념식이었기 때문이다. 기념식을 보면서 이제는 고백을 해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진심 어린 태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왔는지 반추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광주·전남의 폭넓은 지지는 이런 진정성에 대한 보답의 측면도 크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5·18에 대한 진심 어린 태도를 본보기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차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진상 규명 이후의 5·18의 과제와 직면할 것이다. 현재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적 활동 기간인 24개월을 채우고 1년 연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성과를 일궈낸다면 그 결과 공표는 윤석열 정부 시기가 될 것이다. 만약 조사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훨씬 많은 시간을 소요한 문재인 정부의 한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칫 외부적 변수로 인하여 논란이 벌어진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된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현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흔들 것이 아니라 조사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면 진상 규명 이후의 5·18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진실에 기반한 역사적 화해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트라우마 치유 등 일련의 과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으로도 규명하지 못한 실체적 진실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규명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과제를 윤석열 정부가 성심성의껏 제대로 수행해낸다면 보수 정당에게는 낙인과도 같은 광주 학살에 기반한 정당이라는 비판이 희석되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미래의 선택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지역민들에게는 먼 미래의, 또는 다가오지 않을 일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보다는 지금 할 일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 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오늘(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로 42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맘 놓고 외출 한 번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를 둘러싸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 공동대표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광주에서도 지난 18일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역에는 지하로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위험한 리프트를 타고 지하철역을 오가야 한다. 벌써 20년째다. 그간 장애인들은 외침은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숱한 장애인 정책을 내놓았지만 열악한 이동권 확충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 올해는 광주시가 지난 2012년 아시아 최초로 선포한 '광주 인권 헌장' 제정 10년을 맞이한 해이기에 장애인들의 아쉬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탈시설 지원 체계 구축, 장애 여성 권리 보장, 이동권·건강권·노동권·교육권 보장, 발달 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 등 장애인들의 요구 사항은 좀체 줄지 않고 있다.

광주 인권 헌장 제11조는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는 헌장 이행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들어설 민선 8기 지방 정부에서는 우리 장애인들의 요구 사항이 현실화되길 기대해 본다.

〈정성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
| 편집국안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52 | 예향부 220-0692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3 | | |
| 사회부 220-0642 | 체육부 220-0621 | | |
| 전남본부 220-0680 |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